社 說

대학의 사회 봉사적 기능 확대해야

우리학교는 설립이후 최근까지 40여년이 넘는 시간을 말 그대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외형적 성장과 내실화에 힘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일찌기 국제화를 목적으로 해외의 많은 대학과 인적 학문적 교류를 진행시켜왔고 세계평화운동과 인류사회의 재건을 위한 운동에도 앞장서 왔다.

수치상으로 한다면 우리학교는 아직 내실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짧은 역사 속에서도 "경이로운 발전"을 이룩했다는 주위의 평가와 각종 사회운동을 통한 사회기여도, 국제사회에서의 지명도를 감안할 때 우리학교도 이제 대학의 사회봉사적 기능의 수행에 본격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대학의 사회봉사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대학은 유독 외형적으로 대규모의 이벤트에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사고는 전환되어야 한다. 소규모적이고 그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수시적이고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다양한 사회봉사의 기능수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독일의 경우, 대학이 도시마다 하나씩 존재하고 그 대학을 중심으로 도시가 움직인다고 한다. 때문에 독일의 대학도서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가능한 '시립도서관'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수행한다고 한다. 가장 능동적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어우러지는 한 예라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학교 지구환경연구소(소장 김형석교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반인 만들을 대상으로 한 수질검사 서비스(본보 3월20일자 1면)는 매우 바람직한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되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다. 지구환경연구소에서는 또 올 하반기부터는 실내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검사까지 그 서비스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한다.

연구소의 시설이나 여건에 맞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추진과정 속에서 한차원 높은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여, 그 추진 결과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토록 하는 지역사회와 대학의 유기적인 교류가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생각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보다 더 큰 집단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대학은 결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설사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대학이 지니는 학문연구·교육·사회봉사라는 세 기능은 근본적으로 학문을 바탕으로 하면서 두사에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학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이야기할 때나 대학의 우수성을 이야기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인간에게 나이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이 있듯이 우리학교도 이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의 수행이 요구되는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효경' 앞서 '부' 논리 척결해야

작년 유홍비를 충당, 유산상속을 받기 위해 부모를 죽인 박한상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지금, 우리는 한 교수의 살부(殺父)사건을 접하면서 끝없는 절망감에 빠져든다.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은 가족관계마저 부정할 정도로 중증을 앓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 장본인이 현직 대학교수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미국유학을 다녀온 40대박사가 그것도 제자를 양성하는 교육자가 인륜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유산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죽이려는 치밀한 각본아래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열쇠를 교체하는 등 잘짜여진 한편의 추리소설을 방불케 하였다. 바로 우리를 분노케하는 이유가 바로 그 지성이 허구로 있을 법한 일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지킬박사가 한국에 있었다.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간상실감과 배금주의 풍조에 대해 우리는 늘 걱정해 왔다. 날로 늘어가는 존속에 대한 살인, 폭행에 관련한 보도를 보며 그때마다 인륜이 땅에 떨어졌다고 한숨과 분노를 터뜨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부모를 폭행, 살인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거나 사리판별을 하지 못하는 소위 신세대 축에 속하는 이들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의 패륜이 기성세대에서 그리고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지성인에게서 비롯되어 마지막 한가닥 희망까지 무너뜨리고 말았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박한상과 김교수는 모두 미국유학을 다녀왔다는 점이다. 그들이 자본주의 미국에서 배워오는 것은 단지 개인주의와 배금주의 뿐이었던가.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한국에서처럼 아버지가 모은 재산은 모두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당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따져보지 않았는가 말이다. 유산을 노린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미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우리는 재산모으기에 열중했다. 위로는 경제개발이 최우선이었고 그것이 우리사회의 최고 목표가 되어왔다. 인간으로서의 삶은 오직 돈과 연결되어 돈이 아닌 혈연과 가정은 차선 혹은 그 이하의 것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모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만 상속되는 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제 인간성에 대한 절망감은 치유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의 물질 만능주의가 낳은 병리현상이 기성세대의 도덕성까지 황폐화시키고 만 단적인 사례이다. 오늘 우리가 맛본 그 뿌리 깊은 상실감을 그대로 방치해두어야 하는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무너진 도덕과 윤리를 다시 일으켜세워야 한다. 그러나 무턱대고 떠들어대는 윤리와 도덕회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땅에 퍼져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사회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등의 제도적 장치가 활성화되고 만연해있는 '부'의 논리를 척결해가는 것이 해묵은 '효경'을 들먹이는 것보다 우선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익은 없다"

OECD 가입신청의 위험요소

시론

이 대 영
(경실련 정책연구부장)

이솝우화에 황소만 하다고 우기다가 배터져 죽은 개구리 이야기가 나와 있다. 아주 오래 옛날부터 알맹이 없이 겉 모양을 중시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경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OECD 가입신청을 보고 있노라면 자꾸 이 이솝우화가 생각난다. 물론 우리정부가 그토록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너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선진국간 클럽 성격을 갖는 기구이며 현재 25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89년 가입을 검토한 바 있으며, 김영삼 정권 등장이후 OECD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는 3월 30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대 자유화 규약

정부가 밝힌 OECD 가입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발전 정도로 보아 OECD에 가입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가령 GNP 규모로는 세계 13위 정도이며, 교역량 규모로는 세계 10위권 정도라는 것이다. 둘째로는 OECD에 가입하면 선진 경제권의 여러 장점을 배울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이다. 특히 정부는 OECD에 가입하면 마치 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자체가 인정하고 있듯이 OECD가입에 따른 실제 이익은 별로 없다. 우리보다 잘사는 싱가포르, 대만 등이 OECD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별 실익은 없으면서도 위험 요소는 너무 많다는 점이다.

먼저 급격한 외환, 자본자유화로 인해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댓가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여러 의무사항이 있다. 가령 회비납부라든가 외국에 대한 원조를 늘려야 한다든가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런 점은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OECD의 양대자유화 규약, 즉 경상무역의 거래자유화와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에 가입하는 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가장 큰 댓가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과 관련한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91개의 항목중에 20개도 안되는 항목만이 자유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멕시코가 OECD에 가입할 때 총 64개항을 받아들였음을 볼 때 우리나라 역시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추가로 40여 항목의 추가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관성 결여된 정책

최근 페소화의 폭락으로 대표되는 멕시코 경제의 파탄은 실제 외환, 자본자유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세계 전체의 외환거래액은 하루 평균 1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며, 이중 90% 이상이 투기거래이다. 이러한 투기자금이 국경을 넘나들며 각국의 경제를 교란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를 멕시코 같은 개발도상국만이 입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3년간을 보더라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이 외환위기를 수 차례 겪었으며, 최근에는 미국 달러까지 국제 외환투기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 1985년 플라자 합의시에는 G7중앙은행의 합의로 국제 HM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G7이 모두 힘을 합쳐 대응해도 국제 HM의 대량이동에 속수무책인 형편이다.

이러한 실정인데 하물며 중진국에 불과한 한국 단독으로 어떻게 국제 HM에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OECD가입을 위해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외환자유화를 서두르는 것은 국민경제의 장래를 위해 위험하기 그지없는 행위이다.

또 OECD에 가입되면 국제무역, 환경협상 등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개도국 우대조치를 포기해야 한다. 특히 UR협상의 농산물 수입무분, 기후변화협약 등에서 얻어낸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세계화를 구상하게 된 무대인 작년 11월 APEC회의에서 역대 무역자유화를 하는 일정상 한국이 개도국으로 분류된 것을 정부는 큰 외교성과로 내세운 바 있는데, 그 뒤 몇달 지나지도 않아 선진국기구인 OECD에 가입하겠다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도 이해가 곤란한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이다.

제도개혁과 무관

OECD가입으로 제도선진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OECD에 가입하면 환경 등 일부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규제가 도입되어 일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개혁이란 근본적으로 그 나라의 기득권층이 양보해야 가능한 것이지, OECD가입과는 무관한 것이다.

예컨대 OECD회원국인 터키나 멕시코가 여러가지 제도적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은행독립 등 제도개혁은 OECD가입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며,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별 실익도 없는데 정치적 선전효과를 노려 OECD에 무리하게 가입할 경우 멕시코의 실패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권으로 진입하기는 커녕 지난 30년 경제성장의 성과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등 큰 해를 자초할 수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고 황 만 평)

"어떤 희망"

월요포커스 ④

수원캠퍼스내 민가 '홍씨 가문'

지난 3월 9일자 '한겨레 21'은 우리학교 수원캠퍼스 관련 기사를 대서특필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학생회관 옆에 있는 쓰러져가는 기와집이 학교 건물 중 하나로 보도된 것이다. '한겨레 21'은 이 민가를 내세워 지방캠퍼스의 열악한 환경을 꼬집었다. 그렇다면 학생회관옆의 그 기와집은 과연 학교소유일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 그집은 학교의 소유가 아니다. 그럼, 미관상 보기도 좋지않고 학교의 대외적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집이 이사가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집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학생회관이 건립되고 학생들의 활동영역이 2호관에서 학생회관쪽으로 옮겨짐에 따라 우리의 일상과 매일 마주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이 집은 땅주인과 집주인이 따로 있다. 집주인은 앞서 설명한 우씨이지만 민가 뒷편 산을 포함한 땅주인은 현재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모씨라 한다. 그래서 이 땅과 집에 대한 학교측의 매입은 간단하지만은 않은듯 하다.

어쨌든 왜 이사를 가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씨는 "수원캠퍼스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조상대대로 살아온 집이어서 쉽게 떠날수 없고, 학교측과의 이전비용협상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학교 미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사를 갈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우씨는 "현재 학교안에 살아도 큰 불편을 못느끼고 있으나 학교측이 제시하는 이전비용이 맞는다면 이사갈 용의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학교측과 벌여온 협상에서 우씨는 그리 만족할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고 그리고 유래는 알 수 없지만 '홍씨가문이 살고 있다'라는 막연한 풍문만이 돌았다. 그러나 기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홍씨'가 아닌 '우씨'였다. 이 집에는 집주인인 우씨 형제와 그의 어머니, 자취를 하고 있는 우리학교 학생 6명이 살고 있다.

이전비용 맞으면 이사 용의 있어

이 집은 학교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우씨 일가가 대대로 살고 있다. 한때(1980년대 중반) '미소분식'이란 이름의 식당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집뿐 아니라 땅까지도 매입해야 하는 학교측으로서는 집에 대한 매입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 캠퍼스개발계획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우씨'가문의 그 기와집은 학생회관 옆에서 또하나의 경희가족으로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색다른 경희가족이 언제쯤 진짜 경희가족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인 듯 하다.

(류창우 기자)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뉴욕매입

이제, 세계금융의 중심부 뉴욕을 사고 싶다!

1년간의 현지화교육끝에 발령받은 뉴욕 현지법인에서의 생활—
회사의 해외독신과건제에 따라 제약없이 자유롭게 쌓은 현지화의 체험을 심분발휘할 때가 온 것이다.
이곳 뉴욕법인에서의 내 첫 임무는 해외투자—
금융개방의 물결속에서 우리 시장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해외에서의 적절투자를 통해 우리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또 다른 승부수가 될 것이다.
국내최대의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국제화의 첨병답게 조금은 거대한 야망을 품어본다.
세계금융의 심장부 뉴욕에 내 이름 석자를 반드시 남기리라.
그리고! 언젠가는 이 뉴욕을 사고 말리라…

보험에서 국제금융서비스까지 국제화를 선도하는 삼성생명—
국내최대의 금융회사로서 금융개방의 물결에 당당히 맞서
21세기의 국제금융전문가로 성장할
젊은이들을 기다립니다.

삼성생명 국제사업부 오종섭

가족사랑 이웃사랑
SAMSUNG
삼성생명

채용 상담, 문의 : 775-6264(구송회)

보람도 풍물보람사다!
Quality
기분좋기에서 시작됩니다